

흠을 보라 지아니 켜느냐 선인도 오히려 번벌을 면
치 못하려 든 뒤 감히 일성의 형실이 옥못치아름다
와 미훈되도 업서 편우고 룰 당치아니 하고 바로 승
려 할가시부냐

성미가 엘 총령 현신과 밋져 품 현신

현주 |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에 몬져 부형 훈테를
몬드 시니 극히 령명 하야 비로 솜은 잇고 못춤은 업
논지라 능히 괴운을 빌어 형상을 일위 사름의 개외
여씨 유명을 전하느니 그 존고 흠을 의론 할즉 세상

에논가히비홀곳이업고그진복을온전이그초아
홍상련주의귀호신얼골을외와시릭도떠나지아
니시고그덕은순전호야이저러짐이업고그능은
비홀디업서후날마다총동련을돌너디괴곤치아
니호며후따홀진동호고바다홀움즉이디힘을허
비치아니호고그지혜는심히신령호야크게세상
명리호자에셔떡여나생각을고롭게아니호디물
건의소이연과물리의진실노그려움을흔번빛최
매즉시소못차호말도틀너지아니코그수의만흠

은사름이 능히 아는 자 업느니 경연을 상고 하건
대 그 수 이상 중 하 삼 부 잇고 미 부에 삼 품을 논 혼
고 로 구 품 이 라 닐 으 느 니 그 품 이 더 옥 높 흘 스 록 그
부 이 더 옥 만 코 그 덕 이 더 옥 정 하 고 그 능 이 더 옥 크
고 그 지 해 더 옥 북 코 그 수 이 더 옥 너 르 니 라 상 부 상
품 의 신 을 치 라 일 흠 하 니 그 련 주 툄 스 랑 흠 이 모 든
던 신 에 비 거 더 옥 근 절 혼 고 로 불 에 비 흠 이 니 어 마
장 구 품 중 웃 듨 이 라 그 스 랑 이 흥 상 을 나 련 주 께 니
른 후 에 굿 처 며 또 하 품 의 신 을 열 하 게 빛 최 여 하 여

곰련쥬를 사랑케 하야 그 뜻을 알아 사름의게 전하
게 하고 상부 중 품의 신을 지라 일흠하 나 이 신은 진
쥬피더 우갓가와 그 지혜더 우정하 야 지식이 임의
그득하 매 하 품의 신을 효유하 야 하여 곰맛당이 알
스정을 알게 하고 상부 하 품의 신을 좌라 일흠하
니련쥬이 이 신의게 평안이 거하 야 맛치 황데 어 좌
에 평안이 거 흠과 그 하 며 또 황데 장 초령을 배 피 박
성의게 보려 하 면 어 좌에 안자분부 흠과 그 하 야
련쥬 때로 큰일이잇스면 몬져 이 신의게 보야 명

호야 세상사름의게 전케 하시고 중부상품의 신을
권이 라 일흠하니 련쥬 | 장춧세상의 급흔일을 결
단하려 하시면 호상이 신불부리시매 그 권이 너르
고 크니 하품의 신이나 세상사름이나 다 순히 호야
거스리지 못하고 중부상품의 신을 쥬 | 라 일흠하
니 이 신은 하품을 그 음알아 호여곰 그 명을 조차듯
기를 쥬와 못치 하며 또 세상에 국왕을 인도하고 리
유함을 그 본직으로 행하고 중부하품의 신을 능이
라 일흠하니 련쥬 | 마귀의 밍렬함을 꺾거 항복받

고저 호시면 호상이 신의 강함을 쓰시느니 마귀 놀
나 항복 호야 마쳐 사오나 온종이 엄호 주인의 위엄
을 두림과 못치 호교 하부 상품의 신을 려이 라일 호
호니 하 품모든 신의 힘이 비록 크나 이 신의 힘을 밋
지 못함이 먼지 라 현 주이 괴이 호 일과 큰 성적을 행
호거나 세물을 크게 변 호거나 세 상 사 름을 현 별 호
려 호시면 호상이 신의 힘을 쓰시며 국 도와 성읍과
대왕을 직 힘으로 써 본적을 삼고 하부 중 품의 신을
견스지 슈이 라일 호 호니 이 신은 마치 으뜸 못 호야

하품의신을주장하니련주선인의게무계하야
미리의일을알게하시려하면홍상이신을보내여
부리샤마치스신의웃듬곳치하시며성과고을을
적회며금슈와초목의류물적힘으로써본적을삼
고하부하품의신을견스자이라일홈하니련주
세상사롭으로하여곰범상치아니호일을알게하
시려하면홍상이신을부리시며또사롬을적힘으
로써본적을삼나니이구품저신은다련주의군스
이라각품의각과와각부의각되물도모지성미가

엘런신이거느려마치장슈—군병을거느림과
호니이러므로성현이그괴이힘을널니괴룩하야
콜—더세상에크고긴급한일이잇스면런슈—미
가엘을명하야그일을평이케하신다호니라처음
에큰런신이잇서—음—오하야런슈를빅반하니
일힘은루지불이라거역하야항복지아니코모든
런신삼분일을유인하야호가지로빅반하교거역
하거늘성미가엘이더회물쳐이괴여항복밧고또
세말에거조그리스도—세상에나마귀의능을빙

조항야성교를잔해하고주의위를참람이할때에
성미가엘이압복항야디옥에더지리라넷적에런
신이고교모든사름을호슈함이도이미가엘이라
일즉간흔과이힘을나라내고교의무리사로잡
혀고로음이심할때에성미가엘이모이서의게외
고명항야가런주의빅성을위로항고구항라하니
에집도학왕이미혹항야곳이노홀무음이업거늘
성미가엘이속흔신을거느려왕의빅성을벌항야
항로저녀에온나라맛아들을다죽이고사로잡힌

이를 노케 하니라 천주의 백성들이 광야에 십년을
을 두류할 석성이 가엘이 인도하며 날마다 만나를
나리워 기르며 낮이면 백백흔 구름으로써 덮히 고
느리고 밤이면 해 불듯 환광치로써 빛치며 십계를
삭여 모이서 의개 붙치며 타국 악왕이 군스물거늘
려유대아를 침로하거늘 성미가엘이 호로 밤에 덕
국군스십팔만을 죽여 크게 나라사름을 구하야 평
안케 하고 또 성교회를 보우함이 도모지 이미 가엘
이런신의 본직이니라

맛당이 형홀덕은련신을비화본밧음이라

련신은홍상쥬명을순히형야명하시느바일애크
고적으며높고느즈며정형고쥬하며더더코백름
을의론치말고홍상평화하니대개그마음이오직
온전이련쥬의뜻을조차형홀줄을알고즈귀의뜻
을엇음과못엇음을도라보지아닛는고로훈알과
훈때에도평화홍을일허림이업느니네능히이
곳치형면후소원을엇으나못엇으나오직련쥬의
뜻이계신줄을알면네마음이즈연화평홀거시어

늘 엿지 할야네 뜻과 못지 못흐 일을 가져네 마음
요란케 할노고 맛당이 알지라네 뜻과 못지 되지 못
흐일이 결단코 현주의 향에 합지 못흐 연교이니
| 엿지 할야련 주의 뜻을 즐겨 순종치 아니 하고도
로려 조괴스스 뜻을 순종하려 할노냐니 | 만일 현
신과 못지 유명을 승순치 아니 할면 두리건대 일마
다 평안치 못하고 때마다 화평치 못할가 할노라

성라과엘대련신

성경에 기록하엿서 디련주강성전대략칠백년에